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내몽골 법원, 성경 배포 기독교인 10명 징역형 확정



중국 내몽골 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중급인민법원이 9월 11일, 합법적으로 출판된 성경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10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 경영 활동”으로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했다.

국제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이들 10명은 2021년 4월, 성경을 구입해 전도 목적으로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다 체포됐다. 성경은 합법적으로 출판됐지만, 법원은 이들이 속한 교회가 정부 통제 하의 ‘삼자애국운동(TSPM)’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교회였다는 이유로 배포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TSPM은 자치·자양·자전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중국 내 공식 교회로, 중국 공산당의 관리 하에 놓여 있다. 이에 반해 다수의 가정교회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법적 승인 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종종 당국과 충돌한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자들은 왕홍란(Wang Honglan), 지허잉(Ji Heying), 장왕(Zhang Wang), 왕지아러(Wang Jiale), 류민나(Liu Minna), 리차오(Li Chao), 양즈준(Yang Zhijun), 지귀룽(Ji Guolong), 류웨이(Liu Wei), 반안홍(Ban Yanhong)이다.

이들은 체포 당시, 판매는 순전히 전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윤 추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반안홍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신자들 역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왕홍란 등은 수많은 가정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회에 기여했다.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박해와 탄압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담당한 후허하오터 법원은 지난 9월 5일 심리를 거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8-19)

하나님, 중국 내몽골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성경을 전도 목적으로 나누어 준 일을 불법행위로 간주해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한 안타까운 소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가정교회를 향한 미움과 박해가 여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증인들을 진리 안에 굳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상 나라의 정사와 권세로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막을 수 없음을 중국 위정자들이 깨달아 주를 대적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소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교계, ‘오비아’ 합법화 움직임에 강력 반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자메이카에서 토속 신앙인 ‘오비아(Obeah)’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아프리카 전통 신앙 단체인 ‘우누치 재단’이 헌법 심리를 앞두고 오비아 비범죄화를 촉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누치 재단은 오비아가 치유, 보호, 점술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 아프리카-카리브 전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메이카 교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자메이카 사회를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메이카복음주의연맹 회장 알빈 베일리 목사는 현지 언론을 통해 “이미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비아는 사회를 해치고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의식과 주문이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를 합법화한다면 자메이카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며, 목회자들은 이를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계는 현재도 폭력과 타락의 배후에 오비아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맞서 기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니시타운 목사회 소속 달버트 시몬즈 목사는 “일부 범죄 조직이 총격범들을 보호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비아 의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합법화가 범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비아 주술사는 자메이카 전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존재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한다며 진행된 오비아 의식 중 아이가 질식사했지만, 주술사는 “의식 도중 영혼이 빼앗겼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자메이카의 일부 갱단들은 총보다 저주가 더 무섭다는 주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폭력 없이도 통제력을 행사한다. 인신매매 조직 역시 피해 여성에게 “도망치면 저주가 내려 가족이 죽는다”고 협박해 탈출 의지를 꺾는다. 종교의식 또는 주술 치료라는 명목 아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성적 착취 사건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1898년에 제정된 자메이카 오비아법(Obeah Act)은 초자연적 힘을 주장하거나 오비아 관련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메이카 교계는 이번 합법화 논의가 단순한 종교 자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출처: 기독교일보, 기도24·365본부 종합).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브리서 2:14-15)

하나님, 전통과 종교의 자유를 명목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오비아의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자메이카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주와 두려움에 매여 종 노릇 하는 영혼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려는 배후의 사탄에 대항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소서. 또한 자메이카의 복음의 증인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곳곳에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메이카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신성모독법 대폭 강화...기독교 공동체 우려 확산



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부터 개정 형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신성모독법을 1개 조항에서 6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밝혔다. 새 법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모호한 표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지역 관습 규범 같은 ‘어떤 살아 있는 법’(any living law)을 인정하는 모호한 조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지역 당국자들, 특히 극단주의적 이념에 동조적인 세력에게 종교적 해석을 무기로 삼을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38개 주에서 신성모독법 집행 방식은 이미 제각각이다.

일부 주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로 악명이 높다. 한 현지 기독교인은 “교회 폐쇄와 공격이 빈번한 지역들이 있다”며, 이는 20세기 후반 기독교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생긴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모독법은 1965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여섯 개 공인 종교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과거 한 여성 불교 신도가 모스크 확성기 소음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18개월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2000년대 초반 교회 폭탄 테러가 이어지는 등 극심한 긴장이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종교 폭력은 감소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집권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일부 극단주의 단체를 해산시켰지만, 그 이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신성모독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를 ‘특별 감시 대상국(Special Watch List)’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를 묵인하거나 신성모독법을 적극 집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서자바주에서는 기독교 청년 수련회가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 예배 직후 약 200명이 수련회가 열리던 주택을 습격해 재산을 파괴하고, 십자가로 창문을 깨뜨리며, 차량과 건물을 훼손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긴급 대피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5:16-17)

하나님, 참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거짓된 종교에 현혹되어 신성모독법을 확대 적용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주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몸 된 교회를 지켜 주시고 어떤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악법을 이용해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짓밟는 부끄러운 일을 그치고 주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되어 온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32개월 된 아이를 새 ‘쿠마리’로 선출



네팔에서 32개월 된 아리야타라 샤카(Aryatara Shakyar)라는 이름의 아이를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Kumari)로 새롭게 선출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쿠마리는 힌두교와 불교 신자에게 숭배받는 존재로 카트만두 계곡의 토착민인 샤카(Shakya)라는 특정 카스트 집단에서 선출된다.

“송아지 같은 속눈썹”과 “사자 같은 가슴”, “부드럽고 낭창낭창한 손과 발” 등 32가지 신체조건을 갖추고 공물로 바쳐진 물소 등 희생물의 잘린 목을 보고도 울지 말 것 등이 요구된다. 쿠마리가 되면 부정한 땅을 밟로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출도 1

년에 몇 번 정해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쿠마리로 선출된 아이는 살아있는 여신으로 추앙받지만, 초경이 시작되는 순간 신성이 사라진다고 여겨 사원에서 쫓겨나 평생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을 위해 2008년 여성 변호사들이 쿠마리 제도 폐지에 대한 인권소송을 제기했고 네팔 대법원은 “쿠마리는 여신이기 전에 어린이이며, 이동의 자유·가족과 만날 자유·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쿠마리 제도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새로운 쿠마리로 뽑힌 아리야타라는 가족과 지지자들과 함께 카트만두 거리를 행진한 뒤 카트만두의 사원 궁전으로 입궁했다. 신자들은 꽃과 돈을 바치며 아리야타라의 발에 이마를 대고 경의를 표했다.

아버지 아난타 샤카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 딸이었었는데 오늘은 여신이 됐다”며 “아내가 임신 중 여신이 되는 꿈을 꿔고, 그때부터 딸이 특별한 운명을 가질 거라 느꼈다”고 말했다.

쿠마리로 선출된 소녀는 사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소수의 지정된 친구들만 교류할 수 있고,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축제 때만 외출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일반적인 학교생활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네팔 민속 신앙에 전직 쿠마리와 결혼한 남성은 요절한다는 미신이 있어 많은 전직 쿠마리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다만 최근에는 쿠마리도 개인 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은퇴 후에는 정부로부터 매달 약 110달러(약 15만원)의 정부 연금을 받는 등 전통에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출처: 뉴시스, 기도24·365본부 종합).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시편 4:2,5)

하나님, 32개월 된 아이를 온 나라와 부모까지 여신이라 칭하며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행하는 네팔에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인생들의 패역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추사 악한 쿠마리 제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구하는 네팔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만 의지케 하소서. 쿠마리로 선출된 아이와 이와 같은 소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5년 내 최대 2,000개 교회 폐쇄 우려



영국에서 향후 5년 안에 최대 2,000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교회 건물 보존 지원 단체 내셔널처치트러스트(National Churches Trust)가 지난 5-6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3,6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2030년에도 예배당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6%는 “아마도 안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5%는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혀,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약 교회 20곳 중 1곳꼴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농촌 지역 교회에서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응답자 가운데 7%가 폐쇄를 예상했으며, 이는 5년 내 약 900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추정치다.

교단별로는 감리교회(Methodists)는 가장 불확실성이 높아 12%가 2030년까지 폐쇄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장로교(Presbyterians)는 9%, 침례교(Baptists)와 독립교회(Independents)도 일부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한 성공회(Anglicans)는 폐쇄 위험 비율이 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규모가 큰 만큼 실제로는 약 700곳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이 중 40곳은 웨일스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등재 문화재인 1등급(Grade I) 교회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성당은 2030년에도 100% 운영을 확신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 보조금과 복원 기금, 복권기금(Lottery Fund)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관광객이 방문하는 교회는 입장료나 기부금, 기념품 판매 등 부가 수익도 발생해 실제 교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존속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다수 교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농촌 인구 감소, 교단별 구조적 어려움, 재정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향후 약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0-21)

하나님, 신자 감소, 재정 압박 등의 이유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영국의 안타까운 소식에 은혜를 구하며 주께로 나아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와 전통이 희미해지는 이 나라가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며, 세속화에 물들어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심령의 황폐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모두가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터이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살 절벽’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 사역으로 1,100명 새 삶 얻어**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의 ‘자살 절벽’으로 알려진 산단베키 절벽에서 시라하마 구조 네트워크(SRN)가 지난 30년간 1,1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데니스포럼이 전했다. 시라하마 침례교회 후지야부 요이치 목사가 이끄는 시라하마 구조 네트워크는 단순히 자살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교회와 기업, 지방정부가 협력해 숙소 제공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삶을 재건하도록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소망을 심고 있다.

후지야부 목사는 “최종 결정을 대신 내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의 현실 속에서 이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망과 목적이 수치심과 허무함으로 절벽으로 내몰리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 자살은 사회적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메이와쿠(폐·짐)’가 되지 않으려는 문화적 압박과 수치심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절벽 외에도 후지산 기슭의 아오키가하라 숲은 ‘수해’(바다의 숲)라 불리며 자살 장소로 악명이 높다. 정부는 숲 입구에 “생명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경고문을 설치해야 할 정도다.

사람들은 이 숲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찾아오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장소를 공유하고 같은 집단에 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혼자 죽기를 원하는 사람조차도 외롭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데니스포럼의 짐 데니스 박사는 “성경은 자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살로 내모는 일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또한 성경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고 말씀한다며, “공동체를 제공한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다 잘 준비된 이들에게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이사야 55:1,3)

하나님, 자살이 사회적 전염병이라 칭할 정도로 개인의 수치심과 인생의 허무함을 자살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라하마 교회를 축복하사 십자가에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소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목마른 일본과 열방의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일어나 일본과 열방이 주의 확실한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